

정부, 고용·산업 위기 지역 170억 추가 투입

이낙연 총리 주재 점검회의서 업무보고

정부가 올해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목적예비비 17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지역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7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대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지역 대체·보존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의 예비타당성 심사와 장비 도입 심의 등 집행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선박현대화펀드 출자를 통한 일감 지원과 관광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170억원도 추가 투입한다.

또 특별보증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지원 범위를 시설자금 용도로까지 각각 확대한다. 소상공인 대출금리도 현행 2.8%에서 2.0%로 인하하고 신·기보 특별보증 심사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지원사업참여 기업에 대한 기술료 납부 유예와 현금 인건비 계상 인정, 민간투자비율(33%→20%) 완화도 추진한다.

위기지역에 창업한 기업에 5년간 소

독·법인세 전액을 감면해주고, 위기 지역으로 이전할 때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를 현행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인다.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 면제 대상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을 위기 지역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근로자로까지 확대하고, 군산 GM기술교육원을 지게자 자격증 시험응시기관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지원사업의 차별 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내년도 예산에 위기지역 지원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지역위기 사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현장 방문 등으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앞서 산업부는 전북 군산 경남 거제·통영·고성, 창원 진해, 우산 동구, 전남 영암·목포·해남을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현재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특별보증 등으로 총 212억원의 금융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지원도 지난해 272억원에서 올 상반기에만 438억원으로 늘었다.

약 4만6000명에게 총 592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과 생활안정·재취업지원금, 생계안정대부금 등도 지원했다.

/뉴스시스

정읍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성과 인정받아

'콩사랑' 서현정 대표 대통령 표창 '디자인 칸' 행안부장관상 수상

정읍의 마을기업들이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이하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3일부터 1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마을기업 '콩사랑' 서현정 대표가 사회적경제 분야 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마을기업을 이끌어 성공모델로 정착시키며, 마을기업 간 협업과 상생에 기여한 공로다.

콩사랑은 2013년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후 2014년 전국 최우수 마을기업에 선정됐다. 원재료를 지역 주민들로부터 공급받아 떡과 말랭이, 전식 등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며 지역민들과의 상생 발전을 실천해가고 있다. 지정 이후 발전을 거듭, 2017년 기준 24명의 고용 인력과 14억 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올해 매출 목표는 20억원이다.

'디자인 칸(대표 최영석)'은 지난 달 2018년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으로 지정됐고, 박람회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계획 발표대회에 참가해 우수

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디자인 칸'은 청년 디자인 교육센터를 설립해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에게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센터를 통해 디자인 전문가로 양성된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분야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디자인된 설비를 제공하는 마을기업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포부다.

시는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디자인 칸'이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잠재한 마을기업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기업체를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한 김인태 부시장은 "두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해가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더불어 정읍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에서도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협 광주공판장 전북 농민들 폭염피해에 온정 베풀어

폭염 지속에 지쳐있는 출하 농가 흑서기 용품 지원

농협광주공판장(사장 김훈)은 2일 정읍 단풍대인조합 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이정진)을 찾아 최근 폭염 지속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지 출하 농민들에게 각종 흑서기 용품을 전달했다.

광주공판장은 양수기 4대, 농업용 대형선풍기 8대, 300타원 2천장 선풍기 2천개 등 1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서영안농협, 내비골농협, 정읍 단풍대인조합 공동사업법인 남원시조합 공동사업법인 등 흑서기 주출하품목 농민들에게 지원, 폭염속에 지쳐 있는 주산지 농민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농협광주공판장(사장 김훈)은 2일 정읍 단풍대인조합 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이정진)을 찾아 최근 폭염 지속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지 출하 농민들에게 각종 흑서기 용품을 전달했다.

경매사들을 주출하산지에 보내 폭염에 따른 조치사항 등 농산물 제값 받기를 위한 출하지도를 펼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전북농협 유재도 본부장은 "전남에 이어 전북의 농업인들까지 흑서기 용품을 전달해 준 광주공판장 측에 감사를 표시, 시련 끝에 성공하면 성취감이 배가 되듯 금번 폭염도 지혜롭게 극복하여 큰 수확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전북농협도 농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주공판장과 지속 협력하여 전북 농산물의 제값 받기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일주일간 생수 2만병으로 폭염 속 도민 무더위 식혀

농협은행 전북본부 지난달 24일부터 영업점 '무더위 쉼터'로 개방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무더위에 지친 전북도민들에게 도내 전 영업점을 무더위 쉼터로 제공하여 운영 중에 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북 관내 40개 영업점에서는 무더위를 피해 영업점을 방문한 도민들에게 생수 2만여병을 제공했다.

이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권 공동 무더위 쉼터 확대방안'을 발표하기 일주일 전부터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시작한 일이다.

김장근 본부장은 "농업인과 전북도민들이 우리 농협은행 전북본부의 존재 이유"라며 "언제든지 부담 없이 농협은행에 피서 오셔서 편히 쉬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유례 없는 불볕 더위에 도민들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8월 31일까지 계속 '무더위 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김동연 '구조조정한 SOC예산 추가감축은 검토중'

"일자리·혁신성장 영향 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구조조정을 많이 했는데 추가(로 감액) 하는 부분은 밀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SOC가 일자리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서울역 인근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같은 SOC라도 일자리에 도움이 많이 되고 미래 혁신성장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옛날의 토목이 아닌 스마트시티나 도시재생 쪽은 조금 더 투자를 하려한다"며 "소위 혁신 관련된 SOC에 대한 재정 우선순위를 높이고 플랫폼 경제 등을 새롭게 발굴하려한다"고 설명했다.

SOC 예산 규모와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언급했다. 주택 예산 등 일부는 복지예산으로 계산되지만 넓은 의미로는 SOC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김 부총리는 "현재 예산을 심의 중인데 규모를 결정할 정도까지는 준비가 안 됐다"며 "연초나 지난 5월에 국가재정전략회의 때보다는 조금 더 신경썼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기 전 서울역 인근 상가를 돌아본 것과 관련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특히 소외감을 느끼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남대문 시장을 방문했고, 전날에는 고래대 참살이길을 찾은 등 이번 주에만 세 번 새로 소상공인들을 만나 최자립금 정책 등의 영향을 점검했다.

/뉴스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북농협·농업인 행복 콜센터로 행복 전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유재도)와 순창군자부(지부장 한재현) 농촌현장지원단은 2일 순창 구림면에 거주하는 도모(92), 황모(85) 할머니께 노후된 싱크대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허리가 굽어 높은 싱크대를 힘들게 사용하는 할머니에게 현장지원단의 실사를 통해 지원 결정, 지역본부 순창군자부, 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 구림농협(조합장이두용)에서 지역 싱크대 업체와 자



원봉사자 등의 참여로 진행됐다. 또한 '농업인행복콜센터'는 (사)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가 주관,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고향농업인 전용 콜센터로 전문상담사의 말벗서비스 등 정서적 위로는 물론 지역봉사단체와

연계한 각종 생활 불편도 해소해 주는 맞춤형 종합 복지서비스이다.

구림농협(조합장이두용)은 "폭염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농촌 어르신들을 위해 더운 날씨에도 찾아와 봉사를 해주신 '현장지원단'과 자원봉사자'에 너무 감사드립니다"며 "농업인 행복 콜센터를 통해 앞으로 고령농업인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영연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